

情報化 時代와 漢文學 研究의 새로운 方向¹⁾

朴 英 鎬*

〈目 次〉

- | | |
|-----------|----------------|
| I. 머리말 | V. 漢文批評 |
| II. 漢詩 | VI. 漢文教育・經學・其他 |
| III. 漢文小說 | VII. 맺음말 |
| IV. 漢文散文 | |

〈요 약〉

본고에서는 世紀轉換期인 1990년대 한문학의 연구 동향을 살피고 정보화 시대에서의 한문학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1989년부터 약 10여년간 발표된 논문을, 漢詩, 漢文小說, 漢文散文, 漢文批評, 漢文教育・經學・其他 등으로 나누어 그 연구동향을 살피기로 한다. 1990년대에 발표된 연구 논저는 총 2,958편이다. 그 중 한시 871편, 한문소설 787편, 한문산문 264편, 한문비평 365편, 한문교육 207편, 경학 63편, 기타 401편으로, 편수만을 기준으로 보면 한시와 한문소설이 연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1990년대 한문학 연구 동향과 정보화시대에서의 한문학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문학 연구의 전 분야에 걸쳐 연구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청된다. 문학작품을 분석하여 작품 자체의 예술성을 추출하는 작업이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본고는 1999년 10월 30일 한국어문학회에서 주최한 ‘世紀轉換期 國語國文學의 研究動向과 期待’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문학 연구의 본질임을 상기하여 이를 위한 이론과 방법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한문학의 갈래 분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족문학으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문학에 포섭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갈래 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는 특히 한문산문의 갈래 구분에 있어서는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셋째, 작가 및 작품의 발굴 소개와 아울러 원전에 대한 치밀한 고증이 요청된다. 당시 한문학 담당층을 고려하여 지역이나 시대를 망라할 수 있는 작가층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原典에 대해서는 諸 板本の 校勘과 함께 정확한 譯註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작가나 작품의 개별적인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각 갈래 마다에 通史적인 저술이 이루어지고 이를 수렴하는 한문학사를 저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 연구자는 투철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함은 물론 각 학회나 연구기관에서는 기획 연구물을 통하여 한문학사 내지는 문화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각국의 한문학에 나타난 개별성과 동질성을 아우를 수 있는 거대한 시각에서 문학 현상을 조명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의 한문학 연구동향을 검토함은 물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의 연구 동향까지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보화·국제화 시대에서 한문학 연구가 그 의의를 지니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화 현상으로서의 한문학이 아닌 현재학 내지 미래학을 지향하는 학문이 되어야만 살아있는 학문으로서의 존재 의의와 가치를 확보할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문학내부에서 현재 혹은 미래로의 이월적 가치를 탐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또한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중문 초록〉

情報化時代與漢文學的新方

朴英鎬

本稿察看世紀轉換期一九九〇年代漢文學的研究動向，并且摸索情報化時代的漢文學研究方向。爲此從一九八九年大概十多年來發表的論文分類漢詩，漢文小說，漢文散文，漢文批評，漢文教育，經學其他等就要察看那研究動向。一九九〇年代發表的研究論著總兩千九百五十六篇。其內有漢詩八百七十一篇，漢文小說七百八十七篇，漢文散文兩百六十四篇，漢文批評三百六十五篇，漢文教育兩百七篇，經學六十三篇，其他四百一篇，以篇數爲基準看起來漢詩與漢文小說構成研究的主流。一九九〇年代漢文學研究動向與情報化時代漢文學研究方向提示就如下。第一，對漢文學研究的全領域，要求研究方法論的新認識。研究者常常該記以分析文學作品抽出作品本身的藝術性的作業是文學研究的本質，爲此對於理論和方法的開發得快馬加鞭。

第二，對漢文學的分支分類的原則和基準該準備。一邊以民族文學維持獨自性，一邊該建立向世界文學吸收的普遍的分支體系。這是特別在漢文散文的分支區分更迫切的課題。

第三，必需要請作家及作品的發掘介紹并對原典緻密的考證。通過考慮當時担漢文學的作家階層把能包括地域或者時代的作家階層該作爲研究對象，對原典跟諸版本的校勘一起正確的譯註作業一定實現。

第四，每分支實現通史的著作因集約作家或作品的個別研究成果，該著述收斂這些的漢文學史。爲了解決這種課題，個別研究者帶着透徹的問題意識參加研究，同時在每學會或研究院通過規劃研究物繼續要輩出研究成果能貢獻對漢文學史還是文學史。

第五，從把東亞漢字文化圈各國的漢文學上表示的個別性和同質性能配對的巨大觀點，還需要照明文學現象的研究。爲此，檢討中國・日本・越南等幾個國家的漢文學研究動向，同時準¹⁾統一時代必要連北韓的研究動向也把握的姿態。

最後, 情報化・國際化時代爲了漢文學研究具有那意義, 不是以過去的文化現象的漢文學是應成爲向往現在學或者未來學的學問就可以切實保障以生活的學問的存在意義和價值. 爲了響應上述的內容在漢文學內部必要努力就探究現在或者向將來結轉的價值, 對這問題具體的方案也要認真地探索.

I. 머리말

한문학은 이른 시기 한문이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產生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2천여년의 역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사는 극히 日淺하여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수십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문학 연구사는 한문학에 대한 한국문학으로의 歸屬에 대한 학계의 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1931년 金台俊의 『朝鮮漢文學史』가 저술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는 한국문학에서 한문학 배제론이 보편화되면서 한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 의의를 정당하게 확보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한국문학의 범주에 편입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거친 후, 1960년대부터는 국문문학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說話, 小說 등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한문학 작품은 한국문학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보편화되면서, 중·고등학교에 한문이 독립된 교과목으로 설정되고 몇몇 대학에 한문교육과가 설립된 이후, 한문 교사와 연구자들이 다수 배출되었고 그들에 의해 한문학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대까지 20여개의 대학에 한문과가 설립되면서 한문학에 대한 관심이 확장됨은 물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에는 학부 과정보다는 대학원에 한문학과가 증설되어 현재 30여개의 대학원에서 한문학 연구 및 한문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그 결과 짧은 연구 기간에 비해서는 많은 성과를 축적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간의 한문학 연구사를 살펴보면, 한문학 연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거나 특정 시대와 관련하여 검토하기도 하였으며,²⁾ 한국한문학의 주요 분야를 구분하여 그에 대한 연구 동향과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³⁾ 그리고 최근 모산학술연구소에서 ‘韓國漢文學의 回顧와 展望’이라는 학술대회를 통해서 연구 성과와 방향을 정리한 바 있다.⁴⁾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世紀轉換期인 1990년대 한문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정보화 시대에서의 한문학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여년간 발표된 논문을, 그 제목에 따라 漢詩, 漢文小說, 漢文散文, 漢文批評, 漢文教育·經學·其他 등으로 나누어 그 연구동향을 살펴기로 한다.⁵⁾ 1990년대에 발표된 연구 논저 가운데 필자가 조사한 논저는 총 2,958편이다. 그 중 한시 871편, 한문소설 787편, 한문산문 264편, 한문비평 365편, 한문교육 207편, 경학 63편, 기타 401편으로,⁶⁾ 단순히 편수만을 기준으로 보면 역시 한시와 한문소설이 연구의 주류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
- 2) 崔信浩, “韓國漢文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국어국문학』 제81호, 국어국문학회, 1982.
李東歡, “漢文學 研究의 現況과 課題”, 『韓國學論集』 제17호,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0.
朴性奎, “高麗朝 漢文學 研究의 現況과 課題”, 『국어국문학 40년』, 국어국문학회편, 집문당, 1992.
- 朴熙秉, “朝鮮時代 漢文學 研究史 檢討”, 『국어국문학 40년』, 국어국문학회편, 집문당, 1992.
金乾坤, “高麗 漢文學 研究의 現況과 爭點”, 『한국 인문과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1988.
- 3) 李源周, “漢文學 研究 動向”, 『漢文學研究』 제6집, 啓明漢文學會, 1990.
- 4) 『慕山學報』 제11집, -韓國漢文學研究의 回顧와 展望 全國學術發表大會 特輯號-, 慕山學術研究所, 1999.
- 5) 일반적으로 연구사를 정리하려면 작품의 갈래에 준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한문학의 갈래에 대한 논의는 진행중에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국문학의 갈래에 준하여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일차적으로 李源周교수의 1980년대의 연구사 검토에 대해 연속하는 의미를 지닌다. 漢文教育和 經學은 순수 한문학 분야는 아니지만 관심있게 연구해야 될 분야로 생각되어 추가하였으며, 作家論이나 漢文學史, 漢文文法 등과 관련되는 연구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 6) 사실 전체 연구 논저를 통독하고 이 발표문을 작성해야 되겠지만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그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논저의 제목만 보고 분류했기 때문에 분류에 自意性이 강한 한계가 있다.

II. 漢 詩

1970년대까지는 한문학 연구에서 협의의 국문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인식되었던 설화, 소설 등 敍事文學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한시에 대한 연구가 서사문학을 능가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90년대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두드러진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여기서는 80년대 연구 동향과 관련하여 90년대 연구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한시 관련 연구 논저는 총 871편이다. 그 가운데 박사논문이 83편, 석사논문이 295편, 저서가 8편, 일반 논문이 485편으로, 80년대보다는 양적으로 약 2배 가량 늘어났다. 이는 한문학 연구 인력의 확대와 한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데 起因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鼓舞的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90년대의 시대별 한시 연구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시대별 한시 연구 상황

신라이전	고려전기	고려후기	조선전기	조선후기	근세	불특정	계
12	38	104	284	254	11	168	871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기존 연구가 지닌 시대의 편중성 문제인데 이는 80년대의 연구 동향에서도 지적되었듯이⁷⁾ 고려전기 이전의 한시와 근세의 한시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이다. 물론 80년대보다는 편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 연구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하다 하겠다. 고려후기와 조선시대 문학사의 다양한 전개과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려면 前代와 後代의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서는 문학사의 여러 국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고려전기의 漢詩選集이나 個人

7) 80년대의 한시연구 논저 총 453편 가운데 고려전기 이전이 29편이고 근세가 3편이었다.(이원주교수의 앞의 논문 참조)

文集, 史料 등을 통하여 새로운 한시를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다음에 각 시인별로 연구된 상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시인별 한시 연구 상황

시인	논문수	시인	논문수	시인	논문수	시인	논문수	시인	논문수
金時習	19	金宗直	8	金正熙	6	宋時烈	4	李 漢	3
李奎報	19	南孝溫	7	金麟厚	5	宋翼弼	4	李仁老	3
李 穡	14	朴 閔	7	金昌協	5	李 珥	4	李 集	3
丁若鏞	13	申 欽	7	金昌翁	5	金安國	3	林 椿	3
李 滉	13	李德懋	7	閔思平	5	金允植	3	張 維	3
李齊賢	12	鄭斗卿	7	成 俔	5	金 淨	3	鄭道傳	3
權 輿	10	鄭知常	7	李學遠	5	申光漢	3	鄭希良	3
黃 玿	10	趙秀三	7	陳 淳	5	梁應鼎	3	趙觀彬	3
林 悌	9	許 筠	7	崔慶昌	5	元天錫	3	洪良浩	3
權 近	9	朴 淳	6	金克己	4	李達衷	3	李賢輔	3
李彦迪	9	徐居正	6	盧守愼	4	李 植	3	崔益鉉	3
李 達	8	申 緯	6	白光勳	4	李 鈺	3		
鄭夢周	8	鄭 澈	6	成 侃	4	金九容	3		
2회	郭再祐, 權坵, 權克中, 權憲, 權好文, 具康, 金炳淵, 金誠一, 金宇顯, 朴齊家, 朴趾源, 徐敬德, 成石璘, 沈光世, 彥機, 俞好仁, 尹廷琦, 李建昌, 李穀, 李尙迪, 李石亨, 李安訥, 李彦瓚, 李用休, 李玄逸, 一然, 任叔英, 林億齡, 鄭述, 鄭敏僑, 鄭士龍, 鄭樞, 鄭誦, 趙光祖, 曹兢燮, 曹植, 趙靖, 崔奇男, 崔濯, 慧諶								
1회	姜世晃, 姜彝天, 姜希孟, 高敬命, 高尙顔, 郭輿, 權用正, 權應仁, 權瓚, 奇大升, 奇遵, 己和, 金渠, 金得臣, 金鑣, 金萬重, 金文鈺, 金富弼, 金尙憲, 金聖鐸, 金壽民, 金堉, 金仁鏡, 金駟孫, 金立之, 金正國, 金進洙, 金昌淑, 金春澤, 金澤榮, 羅世禕, 羅湜, 南良, 南克寬, 南龍翼, 懶翁禪師, 柳得恭, 馬聖麟, 梅窓, 朴珪壽, 朴祥, 朴允默, 卞季良, 三宜堂金氏, 薛瑤, 成渾, 申景潛, 申光洙, 申光河, 申叔舟, 申用漑, 安軸, 吳健, 吳明濟, 月山大君, 柳方善, 柳寅植, 柳希齡, 尹鑑, 鄭在嶽, 李健, 李匡師, 李德弘, 李萬敷, 李文健, 李秉淵, 李秉休, 李福休, 李山海, 李象靖, 李晔光, 李純仁, 李崇仁, 李承召, 李承薰, 李亮淵, 李源祚, 李宜顯, 李廷燮, 李唐, 李忠翊, 李夏坤, 李荇, 李衡祥, 李希輔, 林昌澤, 林亨秀, 張之琬, 丁克仁, 鄭來僑, 丁壽崗, 鄭汝昌, 趙穆, 曹仲, 趙憲, 趙顯範, 眞雨大師, 眞靜國師, 車佐一, 車天銘, 崔匡裕, 崔崐, 崔成大, 崔淑精, 崔承老, 崔承太, 崔滋, 韓汝俞, 玄鎬, 慧超, 洪侃, 洪錫謨, 洪爽周, 洪愼猷, 黃胤錫, 黃眞伊								

위의 <표 2>를 통해서 한시 작가에 대한 연구 상황을 우선 검토하기로 한다. 전체 연구 대상에 오른 작가가 222명에 이르며 3회 이상 연구된 작가가 63명에 이른다. 물론 金時習, 李奎報, 李穡, 丁若鏞, 李齊賢, 李滉 등 특정 작가에 대한 연구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80년대에 비해서는 연구 대상이 2배 정도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80년대까지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이른바 道學者들의 한시에 대한 연구가 70여편으로, 이 시기에 들어와서 대량으로 이루어진 점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한국 한시사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道學派 시인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한시 연구는 그 의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이들의 사유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적 측면에서의 조명 또한 매우 필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그리고 佛家와 道家의 한시에 대한 연구도 약 30여편으로 80년대에 비해서는 확대되었으며, 閭巷詩人の 한시에 대해서도 10여편의 연구 논문이 이루어져 이 영역도 연구의 범주에 편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 대상 시인들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韓國漢詩史의 총체적인 흐름을 고려한다면 한시 작품을 남긴 작가라면 마땅히 연구 대상에 올라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특정 작가의 작품에 대한 類似한 연구를 지양하고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漢詩史的 位相을 부여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구 대상 시인의 확대와 아울러 기존에는 주로 작가의 시세계 또는 시의식 등과 같은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90년대에는 시의 風格, 詩語, 韻律, 修辭 등 한시 연구에서의 본질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한시의 文藝美를 탐구하려는 경향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지닌 연구는 50여편에 해당된다. 그리고 題材의 경우에도 이전의 社會詩, 詠史詩, 詠物詩 등에서 확대되어 樓亭詩, 山水詩, 紀行詩, 社會詩, 題畫詩 등으로 연구자의 관심이 폭넓게 확산되는 점도 90년대의 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전까지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樂府詩에 대한 연구도 90년대에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약 40여편에 이르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敍事漢詩에 대한 개념과 전개 양상 등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한편 이와 같이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가 확산되는 경향과 아울러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에 주로 동원되던 歷史主義의 方法論과 比較文學의 方法論이 그대로 원용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역사주의적 방법론이 한시 연구에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품 외적인 事象에 이끌려서 작품 자체에 내재하는 예술성을 간과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성과 문학성을 有機的인 관계로 파악하여 이들의 총체적, 역동적 결합물이 문학 작품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비교문학적인 방법론에서는 우리의 한시가 중국 시인의 영향 또는 수용으로 형성되었다는 圖式的인 논리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한문학의 발생과 발전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한문학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영향 관계를 통한 연구를 하되 그러한 영향을 입게 된 緣由와 수용 과정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變改樣相을 究明하는 작업에 중점이 놓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비교문학적인 방법론에서는 중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문문학과 관련 양상을 구명하여 우리의 문학사를 풍부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한 과제이다.⁸⁾ 한시에서의 民謠 受用이라든가 樂府詩에서의 역사적 事實驅使, 時調와 漢詩, 漢譯詩 등에 대한 연구 등은 이러한 점에서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주의나 비교문학적인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構造主義의 方法論 등과 같은 서구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동양의 전통적인 문예 이론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한시 연구 방법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聲韻學, 美學, 修辭學 등 인접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文藝美學의 接近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한시가 지닌 미학적 구조와 미의식의 원리를 추출하여 예술사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 한시 연구의 본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⁹⁾

8) 이와 관련하여 韓國漢文學會에서 “韓國文學에 있어서 國文文學과 漢文文學의 關聯樣相”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韓國漢文學』 22호에 게재한 바 있다.

연구방법론과 함께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한시 분류에서의 문제점이다. 이미 80년대의 연구 동향에서도 지적된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시 분류에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분류자의 자의에 따라 분류한다면 분류의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문학 작품의 분류에서는 분류가 지닌 의미와 아울러 일정한 가치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시 전체를 包括하면서도 貫通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시인의 시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분류 방법을 세워야 할 것이다.

III. 漢文小說

한문소설은 다른 갈래와는 달리 일찍이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實學思想과 결부되어 燕巖小說이 관심을 끌었다. 1930년에 시작된 소설 연구는 50년대까지는 제반 여건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60년대초에는 한문학 가운데 說話, 小說은 국문학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현재까지 한문학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왔다. 朴趾源과 金時習의 작품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였던 70년대까지는 대체로 傳記的·文獻的 研究, 실증 위주의 비교문학적 연구, 특정 사상과 작가의식을 연결시킨 연구가 중심이었다. 이 외에도 소설의 기원을 신라시대 설화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夢遊錄의 장르적 성격과 작가의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野談 가운데 소설적 구조를 갖춘 작품들이 발굴되어 漢文短篇이라는 이름으로 학계에 보고되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도 70년대의 연구 성과를 계승하여 박지원과 김시습의 작품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한문소설

9) 한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본 발표의 토론자였던 이종문교수는 소박한 견해를 전제하면서, “한시의 경우, 평측법, 압운법 등 한시 예술의 미학적 기반과 미의식의 원리에 대한 이론적 무장과 정감적인 체득, 그리고 성운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리와 소리의 연결 방식’이 빚어내는 음성의 상징적 효과와 운률 및 호흡에 대한 연구도 그 한 방법이 될 가능성을 潛在態로나마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의 통시적 체계를 세우려는 연구와, 야담집에 대한 종합적 연구, 한문단편에 대한 연구가 늘어났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소설에 대한 연구논저는 총 787편인데, 그 가운데 학위논문이 397편(박사 78편), 저서가 26편, 일반 연구논문이 354편으로 학위논문의 비중이 큰 점이 특징이다. 90년대에도 물론 이전의 연구 동향을 계승하는 점에서는 특정 작가의 작품 연구와 한문소설의 通時的 體系研究, 野談 및 漢文短篇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새로운 시도도 이루어졌다.

첫째, 敍事文學의 하위 갈래인 傳과 小說과의 관련 양상을 구명하려는 노력들이다. 특히 人物傳의 소설적 성향에 대해 주목하여 傳과 小說, 說話의 갈래론적 성격을 파악하려는 일련의 작업들이 그것이다.

둘째, 소설 작품을 분석하여 거기에 내재한 구조와 의식 세계를 구명하는 노력과 아울러 미학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소설의 문체를 분석함으로써 敍述技法이나 表現美 등을 찾아내려는 노력들이다.

셋째, 野談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아울러 소위 中人文學에 대한 관심이다. 중인들의 작품을 통하여 中人 또는 閭巷人들의 현실인식과 문학사상을 찾으려는 일련의 노력들이다.

이와같은 새로운 연구 동향에 따라 이전보다는 적지 않은 성과가 축적되었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¹⁰⁾

80년대 연구동향에서 이미 지적된 것처럼 연구 방법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설 연구에서 가장 본질적이라 할 수 있는 소설에서의 문학적 특성을 찾기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의 주된 연구 방법이었던 역사주의적, 비교문학적 방법과 아울러 작품에 내재한 구조와 표현 미학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아직은 시론적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10) 李源周교수는 80년대 소설 연구동향의 문제점으로 첫째, 연구 방법과 관련되는 문제 둘째, 전과 야담의 갈래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셋째, 한문단편 연구에서 독단적인 주제 파악과 주제의 이월가치를 확대해석하는 점, 그리고 한문소설의 통시적 체계를 세우는 점과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관계에 대한 폭넓은 논의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小説美學의 接近을 통한 문예미를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의 소설 연구방법론을 원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동양의 전통적인 비평 이론이나 방법을 체계화하여 이를 작품 분석에 적용하는 試圖가 더욱 긴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새로운 소설 작품을 발굴하여 소설사에서의 위상을 매김과 동시에 작품의 異本群에 대한 연구도 심화하여 原典을 확정함은 물론 諸 異本間의 屈折 樣相을 해명하여 그 문학사적 의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선 후기 소설 연구에서는 국문소설과의 관련 양상을 구명함으로써 이 시기 소설들의 소설사적 현상을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한국 소설문학의 통사적 체계를 세워 소설사 전개의 전반적인 면모를 확인함으로써 한국문학사의 구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IV. 漢文散文

한문산문은 한시와 함께 한문학의 본령을 이루어왔으며 창작 당시에는 오히려 한시보다도 중시되었다. 그럼에도 산문을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최근의 일이었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 성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80년대에는 총 954편의 연구논문 가운데 산문연구는 49편에 불과할 정도였는데,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구논문이 총 264편으로 늘어났다. 그 중 학위논문이 109편(박사 32편), 저서가 4편, 일반 연구논문이 151편이다. 이러한 추세는 한문산문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문학사를 총체적으로 의식하려는 노력의 소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를 시대별, 작가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시대별 산문 연구 상황

신라·이전	고려전기	고려후기	조선전기	조선후기	근 세	불특정	계
5	12	13	32	104	1	97	264

<표 4> 작가별 산문 연구 상황

작 가	논문수	작 가	논문수	작 가	논문수	작 가	논문수	작 가	논문수
朴趾源	20	李廷龜	2	徐居正	1	宋基冕	1	李齊賢	1
金昌協	8	林 椿	2	張 維	1	李宜顯	1	金克己	1
崔致遠	5	崔彦搨	2	鄭道傳	1	林南壽	1	宋時烈	1
金駟孫	4	李 植	2	權 憲	1	鄭 述	1	南孝溫	1
丁若鏞	4	李 沂	2	申光河	1	任叔英	1	李安訥	1
李奎報	4	金正喜	2	金 淨	1	俛 遜	1	鄭斗卿	1
許 筠	4	金宗直	2	宋浚吉	1	柳夢寅	1	崔 岍	1
金誠一	3	李夏坤	2	李 鉦	1	李匡師	1	曹 植	1
金昌業	3	李建昌	2	李玄逸	1	李文樾	1	李萬敷	1
李 滉	3	李德懋	2	權士均	1	金遇淳	1		
成 俔	2	金壽增	1	金聖鐸	1	金昌翁	1		
李彦迪	2	高尙顔	1	趙熙龍	1	金允植	1		

90년대의 연구 동향을 보면, 연구대상 시기가 다른 갈래에 비해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대상 작가도 當代에 문장으로 알려진 작가를 위시하여 性理學者에 이르기까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80년대의 주요한 성과였던 熱河日記 연구, 古文의 성격과 전개, 正祖의 文體反正에 대한 연구, 특정 작품에 대한 문체 미학적 접근 등은 90년대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문체에 있어서는 古文, 駢體文, 小品文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졌고, 文類에 있어서는 碑誌類, 序記類, 筆記類, 辭賦類, 哀祭類 등 실용적인 문장이지만 抒情과 敘事, 議論까지 아우를 수 있는 문류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山水記와 樓亭記, 遊山錄 등에 대한 연구

는 이 시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조망받은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東文集成』 등의 文選集을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함으로써 당대의 문선집들의 편찬 과정과 편찬 의식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문 연구에는 아직 갈래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채로 특정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여 개별적인 성격을 해명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연구의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는 지금부터라도 각 갈래의 양식적 특성을 작품의 내적 구조와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¹¹⁾ 그리하여 이러한 갈래 이론이 한국문학 전체의 분류 체계에 統攝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한문산문 연구에서 가장 難題라고 간주되는 각 작가의 산문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문제이다. 실용성이 강한 한문산문 작품이라도 주제의 표출 방법이나 인물의 형상화 방식, 논리적 짜임, 표현미 등을 갖춘 작품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작품들을 문학 연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문예미학적인 측면에서 각 작품의 예술성을 추출해 내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각 시대마다 문장가로 名望이 높았던 문장가는 물론 道學派 문인들의 산문에 대해서도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당시 문단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문 각 갈래의 양식적 특성에 따른 분류와 함께 문체의 발전 과정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한문학의 대부분의 갈래가 중국에서 발생하여 발전되다가 우리나라에 수용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체가 특정 시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변모 양상을 추적하여 한문문체의 변천 과정을 탐구하는 작업도 시도해 볼 만하다. 이는 문체의 변천 과정이 문예사조 내지 문학사상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 한문학의 갈래 체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는 못하였다. 최근 李東歡교수는 “漢文學의 갈래 原理 및 樣式 因素에 관한 試論”이라는 논문에서, 抒情的인 것 · 論理的인 것 · 敘事的인 것 · 表言的인 것 등 4분법을 제시하였다. (『慕山學報』 11집, 1999)

V. 漢文批評

한문비평 연구는 60년대에 詩話 研究에서 비롯되어 70년대에는 考證爲主의 초보적인 실증주의 방법으로 전개되다가 80년대를 전후하여 시화를 포함하여 선인들의 일반 문장에 이르기까지 비평의 연구 대상이 확대되었다. 80년대의 연구 동향은 비평가의 발굴과 고증, 비평 용어의 의미 분석, 작가의 문학관과 문학사상의 탐색, 특정 시대의 주류적 문학론의 공시적 연구, 문학론과 작품의 유기적 이해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제점으로는 시대의 편중성, 연구방법론의 미비, 시화 연구에서 특수 이론의 확대 해석, 비평 용어의 현대적 해석 등이 지적된 바 있다.¹²⁾

80년대의 이러한 연구 동향은 90년대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문제점도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金周漢교수는 “韓國漢文學批評研究의 近況과 問題點”이란 논문에서, 기존의 자료 정리와 연구의 근황을 살피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전망과 기대까지 제시한 바 있다.¹³⁾ 특히 과거 小康의 문학비평을 大同의 입장에서 살피고 이를 서구의 문학비평 방법으로 연구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비평 방법을 찾아내자는 創見을 제출하였다.

1990년대의 한문비평에 대한 연구논저는 총 365편 중 학위논문이 94편(박사 26편), 저서가 6편, 일반 연구논문이 265편이다. 이를 시대별, 작가별로 살펴보면 다음표와 같다.

<표 5> 시대별 비평 연구 상황

신라이전	고려전기	고려후기	조선전기	조선후기	근 세	불특정	계
4	1	47	59	178	13	63	365

12) 李源周교수의 앞의 논문 참조.

13) 金周漢, “韓國漢文學批評研究의 近況과 問題點”, 『慕山學報』 11집, 慕山學術研究所, 1999.

<표 6> 작가별 비평 연구 상황

작가	논문수	작가	논문수	작가	논문수	작가	논문수	작가	논문수
徐居正	14	申 欽	4	李 穡	3	沈光亨	1	洪吉周	1
洪萬宗	14	申 緯	4	鄭道傳	3	洪良浩	1	權應仁	1
李奎報	10	崔 滋	4	南龍翼	3	申采浩	1	崔 岝	1
朴趾源	10	成 俔	4	許 穆	2	南泰齊	1	鄭 造	1
李仁老	8	金時習	3	李學遠	2	李 沂	1	權以鎭	1
許 筠	8	金宗直	3	金正熙	2	李建昌	1	權 鐸	1
李齊賢	7	金麟厚	3	姜 瑋	2	李天輔	1	黃俊良	1
李 滉	7	李廷龜	3	崔致遠	2	徐有英	1	黃眞伊	1
李晬光	6	李 植	3	李崇仁	1	金宇顥	1	李秉淵	1
李德懋	6	趙龜命	3	吉 再	1	沈大允	1	李 栽	1
權 近	6	朴齊家	3	白文寶	1	崔 瀼	1	李德壽	1
李 滉	5	洪奭周	3	南國華	1	鄭 澈	1	元 曉	1
金萬重	5	金澤榮	3	徐應淳	1	金昌翁	1	郭再祐	1
金昌協	5	黃 玟	3	陳 萍	1	尹廷琦	1	朴珪壽	1
丁若鏞	5	宋時烈	3	權克中	1	金富弼	1	李用休	1
李 珥	4	林 椿	3	李彦瑱	1	李夏坤	1	李象靖	1

위에서 보듯이 90년대에는 연구 대상 시기가, 고려후기와 조선후기에 편중되어 있던 80년대에 바해서는 다소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⁴⁾ 특히 徐居正, 權近, 李滉, 成俔 등 조선전기의 문인들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진 점은 道學的 素養을 지닌 문인·학자들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이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전기의 문학관이 후기로 계승되는 과정과 그 移越的 價値까지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작가가 확대된 점과 아울러 性理學者들의 문

14) 80년대 시대별 비평 연구 상황을 보면, 고려전기 이전이 6편, 고려후기 43편, 조선전기 31편, 조선후기 92편, 근세 7편 등이다.(李源周, 앞의 논문 참조)

학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진 점은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려전기 이전의 연구가 미진한 점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통한 독자적인 비평 이론을 정립해야 하는 점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VI. 漢文教育 · 經學 · 其他

한문교육과 경학에 대한 연구도 일찍이 시도되기는 했지만 90년대에 들어와서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 성과를 살펴보면, 한문교육 관련 논저는 총 207편으로, 학위논문이 108편(박사 4편)이고 일반 논문이 99편이다. 한문 교육의 필요성을 위시하여 한문 교육 방법 등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한문교육에 대한 논문이 대부분이다. 특히 학위논문이 많은 것은 다수의 대학에서 교육대학원에 한문교육전공을 설치함으로써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된 경우이다.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시기마다 한문학계 및 교육계에서 한문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2000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문이 재량과목 내지 선택과목으로 그 위상이 轉落되었다. 한문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인 이론 제시와 아울러 그 교육 방법에 대한 다양한 탐색으로 한문과가 학교교육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한문교육을 비롯하여 일반 사회인들의 관심까지 포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문교육에 대한 관심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교육론 및 교재 연구, 지도 방법 등을 연구하는 敎科敎育學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서 이 분야를 전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한문교육의 性格, 目標, 內容, 方法, 評價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21세기 한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경학 관련 논저는 총 63편으로, 그 가운데 학위논문이 6편이고 일반 논문이 56편이다. 경학과 사학은 한문학 형성의 배경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총체적인 한문학 연구는 어려울 것이다.¹⁵⁾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학 분야는 哲學科나 儒學科에서 별반 취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서 연구의 死角地帶로 존재해 왔다. 최근 일부 한문학과에서는 경학 전공자를 초빙하여 이 분야에 대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이 분야의 연구는 주로 한국에서 경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과 시각에 대한 성과가 대부분이다. 주자학의 보급과 아울러 대다수의 학자들이 표면적으로는 주자학적 문학관을 표방하였으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닐 터이다. 경전에 대한 학자별, 시대별로 다양하게 이해한 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다양한 사상적 조류를 해명하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사조가 문학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조명하는 작업과도 결부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연구논저는 총 401편으로, 여기에는 위에서 분류한 방식으로는 귀속되기 곤란한 연구논문을 모두 포괄하였다. 기타 속에는 漢文學史, 作家論, 漢文法, 文字學, 聲韻學 등으로 한문학의 창작 배경이 되거나 漢文文化와 관련되는 연구물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분류 체계를 세분화하여 이러한 연구성과도 일정한 체계안에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VII. 맺음말

이상 1990년대 한문학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80년대와 연구동향과 관련하여 갈래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고 정보화시대에서의 한문학 연구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칠까 한다.

첫째, 한문학 연구의 전 분야에 걸쳐 연구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청된다. 문학작품을 분석하여 작품 자체의 예술성을 추출하는 작업이 문학 연구의 본질임을 상기하여 이를 위한 이론과 방법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한문학의 갈래 분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족문학으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문학에 포섭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갈

15) 趙鍾業, “漢文學研究와 經學 및 史學의 相關性問題”, 『慕山學報』 11집, 참조.

래 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는 특히 한문산문의 갈래 구분에 있어서는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셋째, 작가 및 작품의 발굴 소개와 아울러 원전에 대한 치밀한 고증이 요청된다. 당시 한문학 담당층을 고려하여 지역이나 시대를 망라할 수 있는 작가층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原典에 대해서는 諸 板本の 校勘과 함께 정확한 譯註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작가나 작품의 개별적인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각 갈래 마다에 通史의인 저술이 이루어지고 이를 수렴하는 한문학사를 저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 연구자는 투철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함은 물론 각 학회나 연구기관에서는 기획 연구물을 통하여 한문학사 내지는 문화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배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각국의 한문학에 나타난 개별성과 동질성을 아우를 수 있는 거대한 시각에서 문학 현상을 조명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의 한문학 연구동향을 검토함은 물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의 연구 동향까지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보화·국제화 시대에서 한문학 연구가 그 의의를 지니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화 현상으로서의 한문학이 아닌 현재학 내지 미래학을 지향하는 학문이 되어야만 살아있는 학문으로서의 존재 의의와 가치를 확보할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문학내부에서 현재 혹은 미래로의 이월적 가치를 탐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또한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金興圭, “國文學研究方法論과 理念基盤의 再檢討”, 문학과지성 10권 4호. 1979

- 崔信浩, “韓國漢文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국어국문학』 제81호, 국어국문학회. 1982
- 閔丙秀, 漢文學, 『國語國文學研究史』, 宇石. 1985
- 李佑成, “韓國漢文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한국한문학연구』 8집. 1985
- 李炳赫, “高麗時代 漢文學 研究의 問題”, 『한국한문학연구』 8집. 1985
- 趙東一 외,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7. 1987
- 宋宰鏞, “漢詩分類와 解釋을 위한 視覺의 再定立”, 『국어국문학』 100호. 1988
- 金乾坤, “高麗 漢文學 研究의 現況과 爭點”, 『한국 인문과학 연구의 현황과 쟁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李源周, “漢文學 研究 動向”, 『한문학연구』 6집, 계명한문학연구회. 1990
- 李東歡, “漢文學 研究의 現況과 課題”, 『韓國學論集』 제17호,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0
- 朴性奎, “高麗朝 漢文學 研究의 現況과 課題”, 『국어국문학 40년』, 국어국문학회편, 집문당. 1992
- 朴熙秉, “朝鮮時代 漢文學 研究史 檢討”, 『국어국문학 40년』, 국어국문학회편, 집문당. 1992
- 車溶柱, 韓國漢文學史의 時代區分에 대한 問題點, 『慕山學報』 11집, 모산학술연구소. 1999
- 李炳赫, “韓國文學史에서 論議된 漢文學의 位相에 관한 問題點”, 『慕山學報』 11집, 모산학술연구소. 1999
- 趙鍾業, “漢文學研究와 經學 및 史學의 相關性 問題”, 『慕山學報』 11집, 모산학술연구소. 1999
- 李東歡, “漢文學의 갈래 原理 및 樣式 因素에 관한 試論”, 『慕山學報』 11집, 모산학술연구소. 1999
- 金周漢, “韓國漢文學批評研究의 近況과 問題點”, 『慕山學報』 11집, 모산학술연구소. 1999
- 丁奎福, “韓中漢文學比較研究의 歷史와 問題點”, 『慕山學報』 11집, 모산학술연구소. 1999